



2월 20일 송광사 사자루에서 열린 포살법회에 참석한 대중스님들은 <범망경 보살계본>을 독송하며 지난 보름간의 죄를 참회했다.

인터뷰 송광사 유나 현목 스님

“목우가풍 이어가는 ‘교과서’ 같은 도량”

보조국사를 비롯해 16국사를 배출한 승보(僧寶)사찰 송광사. 이곳의 선방에서는 이번 동안기간 동안 안거를 들인 30명의 수좌가 모두 안거를 성만함으로써 ‘목우가풍(牧牛家風)’의 수행전통을 이었다. 목우가풍은 보조스님의 아호인 목우자(牧牛子)에서 유래된 것으로, 송광사 유나 현목 스님을 이를 “법(法)답게 살자는 정신”이자 “지위고하를 막론한 대중 전체가 함께 예복하고 공양하고 율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목 스님은 지리산 칠불사에서 7년간 묵언정진하는 등 30여 년간 제방 선방에서 수행에 매진한 선승(禪僧)이다.



현목 스님은 “고려 승과(僧科)를 장원급제했던 보조스님은 모든 명예를 버리고 수행에 매진하기 위해 송광사를 중창하고 승가공동체를 운영했다”며 “당시 스님이 주창했던 정혜결사의 정신은 곧 ‘초발심으로 돌아가 정법의 등불을 밝히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2월 20일 송광사 목우현에서 진행된 현목 스님과의 일문일답.

- Q** 보조국사 스님이 이후 효봉·구산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송광사의 수행 가풍은 어떤 것입니까?
A 송광사의 수행가풍이라 할 수 있는 ‘목우가풍’은 한마디로 ‘법답게 살자’는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방처럼 인거 기간 중 율령정진이나 철야정진을 하지는 않지만 본분사를 잊지 않고 여법하게 살고자 하는 정신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구산 스님은 70이 넘는 세남에도 빗자루를 들고 비질을 했고, 현재의 방장 보성 스님도 지난해 수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거리 탁발 행렬의 가장 앞에 서서 한나절 동안 성금 모금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목우가풍’입니다.

- Q** 해마다 2000여 명이 넘는 수행자들이 선원을 찾습니다. 수행자의 자세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A 수행자뿐만 아니라 수행을 하려는 모든 사람이 견지해야 할 기본자세를 다음 계승에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법구경>에 나오는 이 계승에는 팔만사천의 법문을 함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진이나 비나 같은 외부의 소리에 초연하고 중심을 잡아 수행을 매진하는 한편, 사람이나 물질 같은 인연에 얽매지 않으며 오막약세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본성을 잊지 않고 마음자리를 찾아 정진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Q** 인거 마지막 날 전에는 자자(自恣)가 이뤄지는 것으로 압니다. 선원의 자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A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대중들이여 혹 석 달 간의 안거 중 여러분에게 실수를 했거나 허점이 있었다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허물을 지적해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선방 대중이 차례로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허물을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허물을 지적해달라고 청하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허물을 누워치고 반성하는 것이 바로 자자인 셈입니다.

- Q** 현대인들에게 수행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A 수행에는 네 가지 자연스러운 축복의 은혜, 즉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용모가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힘과 용기가 솟는 것이며, 세 번째는 건강이 좋아지고 장수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덕은 안경의 힘을 얻고 지혜와 덕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웰빙이다 뭐다 하지만 진정한 웰빙은 수행으로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고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파도가 잠잠해야 물에 잘 비쳐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지혜가 깃들게 됩니다.

“죄 있는 이 드러내고 죄 없는 이 잠잠하라”



“여러 대중들이여 이제 포살(布薩)을 지어 보살계를 설하노니, 대중들은 마땅히 일심(一心)으로 잘 듣고 죄가 있는 이는 드러내고 죄가 없는 이는 잠잠하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올해 ‘수행중흥 전략’을 위한 대중결계와 포살법회 정례회를 주요 사업으로 내세운 가운데, 매달 보름과 그믐에 총림 대중 전체가 포살법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계종립 송광사가 법회 현장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동안 해제일인 2월 21일, 송광사 사자루에서는 해제 법회에 앞서 전체 대중이 참석한 포살법회가 열렸다. 포살(布薩)이란 동일 지역 내의 비구·비구니가 보름에 한 번 한 곳에 모여 250계의 조문집인 <바라제목차>의 조목을 3번씩 읽으며, 계율을 범한 자는 다른 대중에게 이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의식을 말한다. 올장은 “화합이란 다함께 갈 마회의를 행하고(同一觀齊), 포살설계를 함께 하는 일(同一說戒)”이며 “화합이란 포살, 자자, 갈마, 일상사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지 영조 스님이 송계사(誦戒師)로 나선 이날 포살법회는 보살계를 받은 대중 전체가 참가해 <범망경> 보살계본의 열 가지 계목과 48가지 계를 차례로 읽으며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열 가지 계목은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화내지 말고 참회하면 받아주라 등이다. 48가지 계에는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술을 마

순천 송광사 보름 포살법회 현장

‘범망경’ 읽으며 자신의 허물 고백하고 참회

시지 말라 ▲계를 범한 이는 참회시켜라 ▲참회하는 데는 가서 들라 등 포함되어 있다. <범망경>에서는 “보살계를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받기를 주저하는 이가 많으나, 보살계를 알아서 받고 서서 파한다고 하더라도 세세생생 왕위(王位)를 잃어버리지 않고 필경에 성불(成佛)할 수 있는 선근(善根)과 보살의 종자가 되는 최상의 법문이다”고 설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재가자들을 위한 강의에서 “포살은 승가의 구성원이 될 때 약속한 학처(學處)를 확인하는 설계(說戒)이다. 자자는 법에 대한 공공의 이해와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화해를 위한 논

쟁과 회의 등을 아우른다”며 “포살과 자자 모두 약속된 회의규칙 즉 갈마자법에 의해 수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전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포살법회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살법회에 이어 봉행된 해제법회에는 송광사 선방인 수선사와 문수전에 방부를 들인 30명의 수좌를 비롯한 총림 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동안기간 제대 대중에는 인도에서 온 해탈 스님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방장 보성 스님은 해제법회에서 “올 겨울은 한강이 얼 만큼 유난히 추웠는데 공부에는 추위로 더위도 없다”며 “오직 각자가 가진 초지(初志)를 풀기 위해 노력할 따름이다”고 법문했다. 또한 “오늘 90일 간의 동안기 마지막 날인데, 해제를 한다는 것은 공부를 해 마쳤다는 말인가, 아니면 함께 했던 규약을 좀 내려놓고 쉬자는 것인가”라고 묻은 후 “일대사를 마치기 전에는 절제도 해제도 없는 것이 만큼, 언제 어디서든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일본 백은해학사의 일화를 예로 “이 법문을 듣고 언하에 깨닫지 못했거든 분별심으로 헤아려 알고자 하지 말고 본참공안(本參公案)만 열심히 참구하라”고 당부했다.

순천 송광사/글=여수형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빛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역주, 포대화상항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목역주/흑단목역주
 크기: 8mm×10mm×12mm

흑단목역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빛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온열복대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발생기 전기용량 안정인증, LIG 배상보형 기인 전자파 실재실험,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신약형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가만 해도 온열복대를 착용하면 허리를 온열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숙명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부 치유함에 있어 숙명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흥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숙명(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 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흥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 배, 허리 통증, 발바닥온열질환,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의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임과 질병병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영 / 일일유 공영도 상담 합니다.